

다양한 성(性) 다양한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촉진을 위하여



저와 함께
생각해봅시다!

발행·문의처: 히노시 남녀평등 추진센터 플랫



TEL 042-584-2733

FAX 042-584-2748

E-Mail: danjyo@city.hino.lg.jp

작성 협력 단체: 니지이로 돈치

처음

남녀 평등 사회 실현

성별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모든 분야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활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히노시는 남녀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 평등 기본조례와 조례에 의거한 남녀 평등 행동계획에 따라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역할분담 의식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학교, 지역, 직장 등에서 인권존중의식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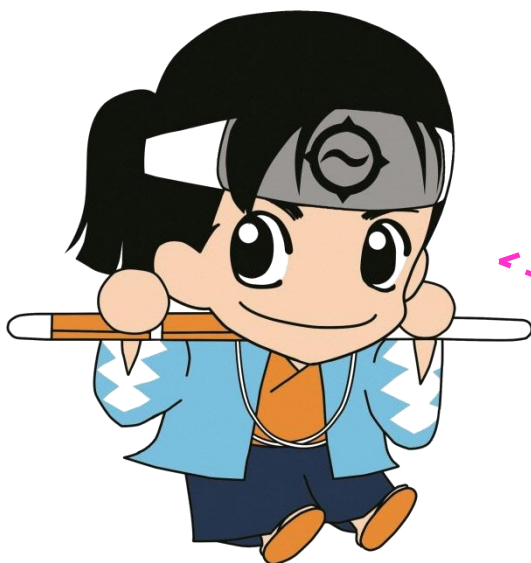


다양한 성(性)과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 동일성 장애인과 동성애자 등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과제로 남습니다.

성 소수자도 그렇지않은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모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관용적인 사회란 누구에게나 “관대한” 사회입니다.

“성” 또는 “생활방식”에 대한 차별, 편견과 오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저씨!
얼마 전에 친척 형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오, 그래? 축하할 일이네.



네, 형은 남자답게 듬직하고
신부는 예뻐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커플”이었어요!

그것 참 멋진 커플이구나.

하지만 나는 이상적인
커플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적은 수이지만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반드시
남자다울 필요도 없지.

아,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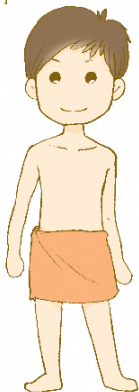


좋아, 그럼 오늘은 함께
“성 소수자”라고 불리는
다수파의 사람들과 다른
성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자.

성 소수자 (LGBT*) 란?

인간의 성의 특성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성, 정신적 성, 좋아하는
상대의 성, 그리고 성 표현입니다.

身体の性(生物学的性)



心の性
(性自認)
性自認

Q あなたは性別は
なんですか



表現する性(社会的性)



다수파의 사람은 “육체적 성이 확실하고” “육체와 정신적 성이 일치하며”, “이성을
좋아한다” 는 세 가지 특징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성 소수자” 라고 불리는데, 그 수는 왼손잡이의 수와 같다고 도합니다. 어느 시대,
국가, 문화에도 반드시 5~10%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하며, 알지 못하고 있을 뿐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 자신과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LG)·여성과
남성 모두 좋아하는 사람(B)· 육체와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T). LGBT뿐만 아니라 연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무성애자)이나 성의 특징을 정하고 싶지 않거나 모색 중인 사람(퀴즈처닝) 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성이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렇단다. 성의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단다.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좋아하는
사람도 이성(異性)만은
아니네요.



그런데 성의 특징이 다수파와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다수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소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거야.

그럼 제가 성 소수자라고
생각해볼게요.



제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몸은
남자이지만 마음은
여자라면...





센노스케 어때?
뭔가 느낀 점이 있어?

어떡하지...지금까지
무심코 성 소수자에게
상처 되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해?



동성애자를 바보 취급하거나
육체와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놀리는 듯한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저도
그만...

맞아. 그런 말은 성 소수자를
힘들게 하지. 하지만 지금부터
생각해 가면 돼.



그럼 성 소수자들이 뭘 느끼고 경험해왔는지 생각해보자.
실제의 경험담을 소개할게.

저에게 성적 지향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양성애자”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그럼
많은 사람과 연애 할 수 있겠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양성애자는 연애 대상으로서
여성도 남성도 포함하므로 온 세상 누구나가
연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사귀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성애자도 다양해서 연애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20대 여성·양성애자)

저는 “남성은 남자답고, 여성은 여자다운
차림새”란 매너가 싫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는데 펌프스를 신고 여성 정장을
입은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계속 여장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만 “여성
여자답게”라는 고정관념이 항상 저를 힘들게
합니다. 20대 FtM(육체적 성:여성, 성적 정체성:
남성)

제가 동성을 좋아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입니다만, 동성애는 동급생들에게
듣는 호모 이야기뿐 선생님은 학교에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니다. 중학생
때는 동성을 좋아하는 것을 숨겨야한다고
생각해 주변에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아이가 자신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성에 대해 알려주길
바랍니다. (20대 남성·게이)

제 육체적 성은 여성입니다. 만약 남성의 육체로
태어났다면 정신적 성을 남녀만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성스러운
게이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끔은 여자다운
옷을 입고 여자다운 말투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 보는 것이 싫어서
여성다운 복장이나 표현은 피하게 됩니다.
“신경을 안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지. 여성의 육체로는
여성스러운 게이인 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20대 FtM (육체적 성:여성, 성적 정체성: 엑스
젠더*)

* 엑스 젠더는 육체와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남성·여성을 정하고 싶지 않다·정할 수
없다·어느 쪽도 아니다·중성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분은
“육체적 성은 여성이지만 성적 정체성은 남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자신의 정신적 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적 지향은 남성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엑스 젠더도 남성에게 가까운 엑스 젠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성으로서 남성을 좋아하는 게이라는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여러 곳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단다.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다양한 생활방식이 인정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정부의 대책

2015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동성애나 성동일성장애
어린이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통지를
초·중·고등학교에 통달

2017년 8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강보험에
통칭 명 기재를 허가

기업의 대책

노무라 증권, 소니, 일본
IBM 등 동성결혼 커플을
남녀 간의 사실혼과 같이
취급하는 제도를 도입

소비자를 위한 상품·서비스를
전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종의 움직임 (휴대전화 회사의
가족 할인적용과 금융기관의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적용 등)

자치단체의 대책

2015년 시부야구에서 시작된
동성파트너십 제도가 전국 약
50개의 자치단체로 늘어남
(2020년 4월 시점)

2019년 4월 도쿄도는
LGBT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존중조례”를 시행

지원단체의 대책

NPO 법인 Re:Bit는 학생 등
젊은이를 대상으로 출장
수업을 실시
그 외 전국 각지에서의 착실한
각 단체의 활동

도쿄 산 변호사회 다마지부는
2017년 봄부터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



센노스케의 고향인 히노시에서도
조금씩이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촉진을
위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단다.

히노시의 대책

히노시는 “히노시 남녀 평등 행동계획” 에서 추진해야 할 중점
시책의 하나로서 “다양한 성 다양한 생활방식을 인정하는
인권존중의식 조성 and 이해촉진” 을 내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히노시의 직원>

인권에 충분한 배려를 하기위해
평소부터 각종 계발을 실시함과
동시에 2017년도부터 시의
직원을 대상으로 LGBT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성 소수자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인권 의식을
높여가겠습니다.

<시민 강좌・모임>

2015년도부터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에 대한
강좌를 개최.
2018년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LGBT 당사자나 지원자,
누구나가 모일 수 있는
“니지토모 카페” 를
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다마 지역을 중심으로 성 소수자에 관한 시민 강좌를 개최하는 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니지이로
돈치” 여러분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돈치 (동지同志)” 는 대만을 비롯한 중국어권에서 성 소수자와 그 지원자들을
의미하는 “동지同志(Tóng zhì)” 의 일본어 발음입니다.



여러 단체가 활약하여 성 소수자가 생활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군요.
TV나 신문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네요.



그러나 성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도 뿌리
깊단다.
친구가 성 소수자인 경우 거부감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50%, 자신의 자식인 경우는 70%가
“싫다 • 어느 쪽을 선택하자면 싫다” 라고
회답했어.



충격이네요...사회나 사람들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걸릴듯하네요.



맞아. 그래서 여러 곳에서의 활동과 지원이 필요해.
센노스케가 살고 있는 히노시도 성 소수자의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히노시의 메시지

**성 소수자의 어린이, 학생, 사회인, 고령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히노시는 전력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의처 • 상담창구 안내】
히노시 남녀평등 추진센터 플랫
(다마다이라노 모리후레아이관 2F)

TEL 042-584-2733 평일 8:30~17:15

**사회를 바꾸는 것은 행정이 힘이 아닌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여 더욱 좋은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끝맺음

정신적인 부담

많은 성 소수자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편견이 두려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주변 사람에게 맞추어 생활하므로 결과적으로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채용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불안, 걸모습과 신분증의 성별의 차이로 필요 이상 확인을 받아 긴장하는 등 정신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성적지향” · “성적 정체성” 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정확한 지식을 익혀봅시다.



“정확한 지식”
이 필요하군요

언어폭력

평소의 무신경한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림거리가 되거나 “남자답게”, “여자답게” 처럼 만약 성적 정체성과 다르면 자신이 부정당한듯한 말을 듣게 되는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괴롭힘” 이나 “놀림” 으로 이어지는 언동은 서로 주의합니다.

레즈비언은
기분 나빠!



너
호모아니야?





성 소수자를 위한 상담기관



도쿄도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관한 상담

●섹슈얼 마이너리티를 위한 법률상담

전화상담 매주 화요일·금요일 (공휴일은 휴무) 18:00~22:00

상담 전용 전화번호 03-3812-3727

상담료 무료

●LINE 상담

매주 월요일·목요일 17:00~22:00

상담전용 LINE 계정 LGBT 相談@東京

도쿄 산 변호사회 다마지부 레인보우 상담

섹슈얼 마이너리티를 위한 법률상담

전화상담 매달 첫째 주·셋째 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주 금요일) 13:00~16:00

상담 전용 전화번호 042-512-8221

상담료 무료

면접 상담 접수 시간=월~금요일 9:30~12:00/13:00~16:30

상담 예약 전용 전화 042-548-1190

히노시 여성 상담

전화 상담 및 면접 상담

매달 첫째 주~넷째 주 화요일 (공휴일은 휴무) 18:00~21:00

매달 첫째 주~넷째 주 수요일 (공휴일은 휴무)

9:45~11:45/13:00~16:00

상담 전용 전화번호 042-587-8177

※예약 필수. 상담은 50 분 정도. 상담료 무료